(붙 임)

사 진 자 료



<『북한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』>



<'강서대묘' 속 현무 모사도(북한, 2000년대 제작, 한성백제박물관 소장>

** 먹과 채색 안료를 사용해 붓으로 무수한 점을 찍어서 석벽의 거친 질감과 천여 년의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퇴색된 벽화의 모습을 표현*



<'수산리벽화분' 여자 시종들 모사도(왼쪽)와 2006년 촬영한 벽화 사진(오른쪽)>

** 1990년대 제작된 모사도에 비해서 2006년 남북공동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에는 왼쪽 여인의 머리 부분이 떨어져나가 회벽이 드러난 상태*



<1980년대 촬영한 '각저총' 씨름 벽화 사진(위)과 2000년대 제작 모사도(아래)>

** 중앙의 나무 부분을 비롯해 그림이 떨어져 나간 면적이 늘어남*